■ 신년회견으로 본 2014 승가교육 방향

개편된 교육제도 안착·활성화 '원년'

지난 22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행자교육-기본교육-연수교육-전문·특수교육 등 교육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원이 야심차게 도입한 기본교육기관 표준교과과정 제도가 전국의 모든 사찰 승가대학에서 시행된 의미 있는 해이다. 오는 3월 개강을 앞둔 법주사승가대학이 표준교과과정을 수용하면서 전국의 16개 사찰승가대학이 표준교과 7개 분야 36개 과목에 대해 교육한다.

승가대학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한글염불교육에 대한 학인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학인염불시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불교상용의례 Ⅰ Ⅱ' 강의평가를 2015년 4급 승가고시에 반영해 일상에서 염불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원은 의례의식 대중화와 수행풍토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종 소속 외국인 스님들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단 스님들을 위한 '국제승가대학' 개원도 새로운 시도로 주목된다. 현재 전체 승가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스님은 40여명으로, 교육원은 이들 외국인 학인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스님들이 외국에서 포교하는 것보다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서 공부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포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사운영과 강사 수급 등의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수교육은 올해 처음 법계별 교육이 도입돼 스님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계별로 12회 강좌가 개설되며, 내년부터 1~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법계별 연수를 이수해야만 해 법계 강좌에 대한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급 승가고시에 '설법' 추가
염불시연회 열어 생활화 앞당겨

외국인 스님 국제승가대학 개원
한국불교 세계화 토대 강화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종단은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불교융합학과 및 한문불전아카데미 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 외에도 연구지원비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올해 4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승가고시도 달라진다. 10월 중순경에 실시되는 2급 승가고시에서는 논술과 병행해 '설법'분야가 추가된다.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1급 승가고시에서도 설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출가한지 20~25년이 넘는 스님들은 종단과 사회 지도자로서 대중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설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수좌 스님들은 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교학을 연찬하는 스님들은 본인의 연구 분야 등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택해 설법을 하면 된다. 가섭스님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오는 3월7일 치러지는 4급 승가고시에는 기본교육기간 내신성적과 같은 일상수행평가가 점수에 반영된다. 또 법계별 연수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고시문제에 반영된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는 승가교육 교재와 자료집을 제작한다. '청소년출가 및 단기출가용' 교재를 제작하는 것 외에도 역대 승가고시 기출문제 자료집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월 〈불교영어 중급 1, 2〉와 음원을 함께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교육원 통계자료집도 2월에 발간하며 올해 연말에는 〈불교교학자 인물정보〉를 모아 책으로 만든다. 스님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강의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내성천 방문은 환경 이슈에도 종단이 적극 나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행보로 평가된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율스님과 '내성천 습지와 새들의 친구들' 회원 및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환경문제도 종단·불교문제

환경파괴와 생명 주민피해
사회갈등 해소 역할 '기대'

■ 종단 대표의 '내성천 방문' 의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새해 첫 자비나눔 방문은 내성천이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33대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하며 임기를 시작한 이후 매월 우리 사회 갈등의 현장이나 소외 계층을 찾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불교를 강조하며 자비행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자비나눔 방문이 불교의 자비정신 실천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방문 현장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가고 내성천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성천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자연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래강인 내성천은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신음하고 있다. 곳곳에 모래가 유실되면서 자갈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율스님은 2년 전부터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강둑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변해가고 있는 내성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총무원장 스님이 지율스님을 격려하고 내성천 곳곳을 살폈다는 점은 앞으로 불교계가 자연과 환경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 환경 이슈에도 적극 나서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해 3월 지율스님이 찍은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을 관람하며 내성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 내성천 보호를 위한 격려금을 전달하고,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종단과 집행부, 교구본사 차원의 동참을 약속한 점은 내성천 보호를 위해, 나아가 환경 이슈에도 불교계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장 장명스님은 "환경파괴와 생명, 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내성천을 종단의 수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종단이 나서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환경문제에도 종단이 적극 대처하겠다는 행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교육아사리, 종단소임 겸직 바람직한가

어현경 기자의 **현장에서**
eonaldo@ibulgyo.com

오는 4월이면 조계종 교수아사리 제도 시행 3주년을 맞는다.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하며, 종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지난 2011년 4월 19명의 스님을 교육아사리로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명 내에 스님들이 선발됐다. 올해도 교육원은 지난 23일 7명의 교육아사리를 새로 선정했다. 이로써 종단 교육아사리로 위촉된 스님은 총 34명이다.

만 3년이 된 교육아사리제도를 보면서, 당초 도입된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 일부 스님들이 중앙종무기관에 소임을 맡으면서 교육아사리 직을 유지하고 있어 재야에서 학문연구를 하는 스님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교육원이 교수아사리 제도를 만든 것은 불교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에 대해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님이 300명을 웃돌지만 그간 종단은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교육아사리로 위촉된 스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단의 지원 없이 개인 원력으로 해외서 유학하거나 국내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그 스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아사리 스님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다. 다만 종단 소임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스님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교육아사리 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리는 게 아닐까. 교역직 종무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교육아사리 직을 내려놓고, 제도권 밖에서 승가교육과 학문연구에 몰두하는 스님에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방적 문화재 보존·관리 나선다

2014 불교중앙박물관

유물 소장·관리자 교육 지원
선지식 유품 기증 운동 계획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덕문스님)이 체계적인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올해부터 '유물소장자·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문화재 보전기반 구축에 나선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22일 2014 신년 업무계획을 통해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과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소유자들의 자발적 보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까지 총 10년 동안 국고보조를 받아 불교문화재 보존연구원 건립, 문화재보존관리현황 모니터링, 다량보관장소 환경 모니터링, 문화재 예방적 긴급보존처리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관장 덕문스님은 "문화재 보존 처리 기술이 업체에만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불교문화재는 스스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한 사찰에서 괘불을 보수하면서 장판을 댄 것을 봤다. (문화재를) 아파트나 건축물 대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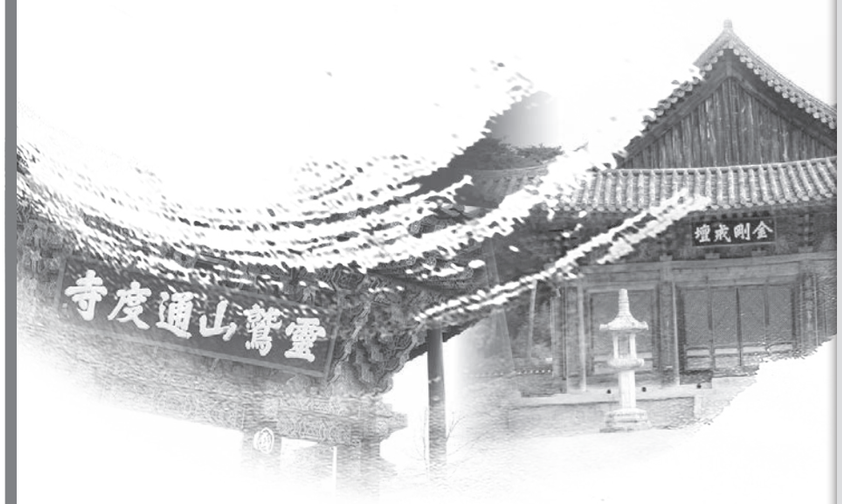
올해는 우선적으로 문화재 소장자 및 관리자들이 일상에서 문화재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권역별로 4곳을 정해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성보박물관의 시설관리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재질별 취급 방안, 온습도 조절 및 도난, 화재 방지 등 관리방법 등을 가르친다.

금석문 탁본 조사사업도 펼친다. 현존하는 금석문 자료들은 대부분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연 상태로 노출돼 있어 풍화와 마모, 인공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은 올 1년 동안 경북 일부지역 50여개 유물을 대상으로 탁본과 사진 및 영상촬영을 한다. 근현대 스님들의 소장유물 기증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조계종 역사가 전승될 수 있도록 원로스님들의 소장유물기증을 유도하는 한편 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스님 등을 중심으로 유물을 기증 받을 예정이다.

올해 주요 전시 일정도 밝혔다. 오는 6월에 탑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복장 등을 살펴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9월에는 '추사와 봉은사'를 주제로 서울 봉은사의 창건과 역사인물을 다루는 전시회를 연다. 성보문화재와 추사 그리고 벽암각성 스님 등 관련유물들을 정리해 사찰 창건부터 현재까지 되돌아보는 전시를 가질 예정이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 축 총 림
通度寺
www.tongdosa.or.kr



2014학년

통도사승가대학
학인 모집

●모집학과 치문과 00명, 사집과 0명
●전형방법 • 서류접수기간 : 2014년 3월 7일 ~ 3월 19일(수)
• 입 사(入寺) : 2014년 3월 19일 정오까지
• 갈마 및 입방 : 2014년 3월 21일 오후 1시 강원 큰방
●구비서류 입방원서, 승적사본(수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1부
건강진단서(행자교육원에 제출한 것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됨)
은사스님 추천서 ····· 2부
증명사진 ····· 4매
※사진과 방부자는 치문수료증 제출해야 함
●준 비 물 만의가사, 장삼, 발우
●문 의 처 055)384-2035(강원, 사교반), 055)383-2363(강원, 큰방)
055)382-7182(종무소 교무국)
●접 수 처 055)383-2363(강원, 큰방)

영축총림통도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圓山 · 학장 玄珍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입방 및 지원자격
• 전문과정(2년) :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한 비구 및 2014년 비구계 수계 예정자
• 연구과정(3년) :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모집인원 전문과정 0명, 연구과정 0명
■ 모집일정 접 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14년 2월 14일(金 음력 1. 15)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 접수가능〉
전형 및 면접갈마일 : 2014년 2월 15일(土 음력 1. 16) 오후 1시
면 접 장 소 : 율학승가대학원 큰방
합 격 자 발 표 : 추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 승려증사본(승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 자기소개서 각1부 • 사진(4×5) 5매
■ 문 의 처 055)382-8348(율학승가대학원), 055)382-7182(통도사 종무소)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운영위원장 통도사 주지 圓山 道明
율주 中山 慧南 율학승가대학원장 又雪 德文